광주·전남 문학도 글발 떨치다

지역 출신 16명 '2006 신춘문예' 당선
광주대·순천대 문창과 각각 5명 배출
광주대 문창과는 10년간 70여명 등단

광주·전남 출신 문학도들이 2006 신춘문예에서 글발을 떨쳤다.

1일 발표된 전국 20여개 언론사의 신춘문예에서 광주·전남 출신 당선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광주대와 순천대 문예창작학과는 각각 5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특히 광주대 문예창작학과의 경우 2004년 4명 등 지난 10여년 동안 70여명의 신춘문예 당선자가 나와 문단 등용의 산실임을 다시 한번 반증했다.

광주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배다인(41·본명 배덕임)씨는 한국일보에 낸 동화 '황금빛 울타리'로 당선소식을 접했다. 2003년 월간 '아동문예'를 통해 등단한 그는 지난해 대산문화재단에서 동화 부문 창작기금 1천만원을 수여받아 연이은 '겹 경사'를 안았다.

광주대 문창과의 경우 신춘문예를 앞두고 학생들이 합숙에 들어갔다는 후문(後聞).

〈배다인씨〉

〈조성문씨〉

〈이원화씨〉

이은봉 교수는 "학기 중 교수가 주축이 돼 소그룹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성을 보이는 학생들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순천대 출신으로는 대전일보 동시부문에 박해련씨가 '저녁무렵'으로, 양관수씨와 김애리나씨는 진주 신문에서 수상 소식을 들었다.

순천대의 경우 장르별 소모임을 구성해 작품전을 수시로 열고 있으며, 학기 중 시 50여편과 소설·동화·희곡·비평을 1편씩 제출해 기본기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에서는 광주여대 문화콘텐츠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주부 이원화씨가 단편소설 부문에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중학생인 아들 이름으로 응모했던 이씨는 현재 민족문학작가회의 광주지부 간사를 맡고 있는 작가 지망생이다.

중앙지에서는 한국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지역 출신 당선자가 나왔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 당선자인 조성문씨는 함평 출신으로 외대 한국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인천 인항고 교사로 재직 중이다.

그의 작품 '주산지 물빛'에 대해 이지엽 시인은 "세밀한 묘사와 시적 에스프리(Esprit·정신)가 뛰어나고 감각과 가락의 운용 또한 수준급"이라고 평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값 논란…야적 벼 처리 늦어져

농민 "40㎏ 5만2천원 매입을"
농협 "가공비 감안하면 어려워"

야적 벼 매입 가격을 놓고 농민단체와 농협의 입장 차이가 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민단체가 쌀 협상 국회 비준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도 본청과 각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에 30여만 포대를 야적한 뒤 3개월이 다 되도록 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비와 폭설 등으로 인한 미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400억원을 지원한 만큼 농협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담해 2005년산 벼 전량을 40kg 1포대당 5만원에 매입해 주고, 야적 벼는 운송비 등을 감안해 2천원을 더한 5만2천원에 매입해 주도록 농협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농민단체의 주장은 현재 쌀 소비자 가격이 80kg 1가마당 17만5천원이기 때문에 벼 40kg 1포대는 5만원에 사줘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측은 그러나 쌀 80kg 1가마당 가공비용이 1만6천원 이상 소요되고 쌀 도매가격이 13만5천원인 점을 감안할 때 농민단체의 요구를 들어 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일단 전남쌀 전체의 이미지를 위해 농협이 농민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 야적 벼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시청과 광산구청에 야적된 벼 5천여 포대를 개인 미곡처리업자를 통해 4만5천300원에 매입했는데 도에서는 이 가격 이상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 폭설피해 현장 지원중 순직
故이익주 국장 추모비 건립 추진

전남도는 함평군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과로로 쓰러져 순직한 이익주 부산시 행정관리국장의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일 "부산에서 달려와 전남의 폭설 피해 현장을 둘러보다 숨진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려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함평군 현장 인근에 추모비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전남도는 고인의 정신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함평군과 협의해 피해복구 봉사를 벌인 현장이나 인근 지역에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해 소망 담아 '민주의 종' 33번 울렸다

박광태 광주시장 등 14명의 각계 인사들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종을 타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서 '제야의 종' 첫 타종

광주에서 처음으로 '제야(除夜) 의 종' 타종식이 열렸다.

'빛고을사랑운동추진협의회'(회장 강정임)는 1일 새벽 0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인근 '민주의 종각' 에서 1만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제야의 종 타종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총대리 주교, 방철호 목사, 혜향 스님, 소녀가장 한주희양, 유태명 동구청장, 고제철 금광기업 회장, 조국현 1등광주건설범시민추진위원장, 김용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조광향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강정임 광주YWCA 회장, 민명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 정수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타종 인사 14명이 33번의 종을 울리며 올 한해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 등을 기원했다.

박 시장은 타종식에서 "'살기 좋은 광주, 잘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들의 잠재력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밤 10시30분부터 열린 '아듀 2005 희망 2006' 행사에서는 불꽃놀이와 함께 인디밴드, 인기가수 등이 나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8억8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제작한 '민주의 종'은 ▲무게 30.5t(8천150관) ▲높이 4.2m ▲지름 2.5m ▲두께 25㎝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제야의 종' 33번 왜?

광주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33번 타종한 의미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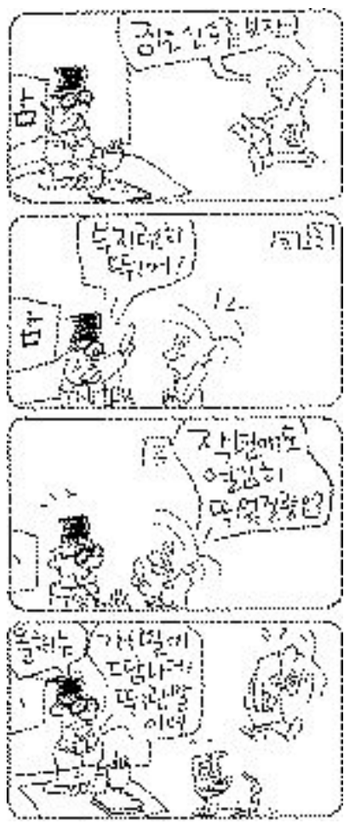
광주시는 '민주의 종'을 33번 울린 이유에 대해 "지구의 적도를 둘러 싼 28개 별자리에 5행을 더한 것으로 우주에 소망을 빈다는 뜻을 담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선시대 종루(보신각)에서 새벽 3시(寅時)께 4대문을 열고 통행금지를 해제하라는 신호로 33번 타종한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다.

이외 제석천(불교의 수호신)이 이끄는 하늘의 삼십삼천에게 무병장수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한다는 불교적 의미도 갖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

나원참 〈6718〉 김종두



실종 선원 시신 1구 인양

완도 해양경찰은 지난달 28일 보길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꽃게잡이 통발어선 '1001 한일호' 실종 선원 10명에 대한 수색 4일째인 1일, 기관장 유성조(47)씨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목격자 허위진술 민사 책임 없다"

상나팔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1일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박모(56)씨가 교통사고 목격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목격자들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유죄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무죄가 확실히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형사재판의 증인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기억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설명.

○…박씨는 1997년 8월 김모씨의 차량과 충돌했으며 목격자들이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고 허위진술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연합뉴스